

16세기 중반 詠鶴詩에 나타난 鶴의 의미 연구

- 「次玉堂失鶴韻」을 중심으로*

이연순**

— <차 례> —

1. 서론
2. 「次玉堂失鶴韻」의 창작 배경
 - 1) 1541년 湖堂修契와 失鶴唱酬
 - 2) 唐代 失鶴 詩의 성행과 영향
3. 「次玉堂失鶴韻」에 나타난 학의 의미
 - 1) 元韻의 저작 시기와 학의 의미
 - 2) 次韻詩에 나타난 학의 의미
4. 의의와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541년 당시 讀書堂에서 賜暇讀書하던 13인이 ‘湖堂修契’를 하여 학문을 토론하고, 이 가운데 松齋, 退溪, 河西, 石川 등이 「次玉堂失鶴韻」이라는 失鶴 唱酬詩를 남긴 점에 주목하여, 여기서 16세기 중반 詠鶴詩에 나타난 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학의 의미 형상에 영향을 끼쳤을 당시 창작 배경으로 사상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에 대해 살피고, 구체적인 저작 시기를 추정해 밝힌 후 「次玉堂失鶴韻」에 나타난 학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次玉堂失鶴韻」에서 학은, 당시 독서당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16세기 중반에 학문적, 문학적으로 교유한 문인들이 자신과 학을 동일시하여 신선과 같은 경지에서 자유롭게 정신적 비상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4325).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교수

16세기 중반, 鶴, 詠鶴詩, 「次玉堂失鶴韻」, 松齋, 退溪, 河西, 石川

1. 서론

조선 중기, 그 가운데서도 16세기 중반 문단의 배경 또는 동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에 한문학사에서 16세기 중반은 中宗, 明宗代를 거쳐 ‘穆陵盛世’라는 宣祖代의 결실을 향한 개화기로 인식되어, 특히 이 시대 한시문학은 형식적 규범과 화려 장엄만을 드세우던 詩風에 변화가 오고, 宋風의 主理에서 唐詩의 主情으로 복고문풍의 기틀이 잡혀가게 된다¹⁾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실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朱子大全』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하던 16세기 중반, 곧 중종조는 그 어느 시대보다 讀書堂의 움직임이 활발했고, 그곳에서 사가독서한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유 또한 주목하게 된다. 이들은 독서를 통한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많은 교유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이를 통해 당대 문학의 동향을 좀 더 뚜렷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사가독서한 이들은 독서당에서 함께 지내며 독서한 체험을 나누고, 그 주변의 경물들을 읊은 詩들을 다수 남겼다. 경물 가운데는 梅花, 四季花, 松竹, 雪 등뿐 아니라 鶴이 특히 눈에 띄는데, 이는 당시 옥당에서 학을 키운 풍조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고,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 尹根壽(1537~1616)의 『月汀漫錄』에서 보인다. 여기서는 이 사실에 이어 학사들이 읊은 詩가 많았다고 하고, 모두

1) 이병주 외, 『한문학사』, 새문사, 1998, 288쪽.

‘天’字 韻으로 압운하였는데 그 중 石川 林億齡(1496~1568)과 河西 金麟厚(1510~1560)의 詩가 더욱 膾炙된 일을 말하면서 두 詩의 全文을 실어놓았다. 그리고 하서의 詩가 특히 학을 잃어버린 뒤에 지은 것임을 밝혔다.²⁾

월정이 그의 만록에서 들었듯이 옥당에서 키우던 학을 노래한 詩로 석천과 하서의 詩가 유명한데, 松齋 羅世纘(1498~1551)의 문집 『松齋遺稿』에는 단지 이 두 사람의 詩만이 아니라 송재의 詩를 비롯해 退溪 李滉(1501~1570)의 詩 등이 「次玉堂失鶴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실려 있다.³⁾ 여기에는 仁齋 洪暹(1504~1585)의 韻을 次하였다고 하여, 그 元韻도 함께 附記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이때 옥당에서 지어진 詩는 인재의 元詩에 송재, 석천, 퇴계, 하서의 次韻詩까지 합하면 총 다섯 수에 이른다. 이렇게 한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을 두고 次韻한 시가 여러 편 나온 것도 드문데다, 이들의 시적 지향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중 특히 송재, 퇴계, 하서는 같은 시기 옥당에서 함께 사가독서하며 이들을 포함해 13인이 수계해 1543년, 「湖堂修契錄」이라는 기록도 남기고 있기에, 이들의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당대 문학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시사해주는 바가 크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次玉堂失鶴韻」을 중심으로 16세기 중반의 詠鶴詩에 나타난 학 의미의 특징을 살피고, 이로써 당대 문학의 한 지향

2) 尹根壽, 『月汀先生別集』, 卷4, 「漫錄」, “玉堂舊蓄一鶴, 一時諸學士吟詠者甚多, 皆押天字韻, 而其中林石川億齡, 金河西麟厚之作, 尤膾炙人口, 河西詩則在失鶴之後. 林詩曰, 數聲嘹亮沈寥天, 蒼檜陰中苦竹邊. 煙雨幾羣三島月, 風霜又倒五湖蓮. 緇塵已染新毛換, 丹頂猶存舊骨仙. 江海老人空對立, 不知涼露濕秋筵. 金詩曰, 悔放殊姿送遠天, 祗今蹤跡寄何邊. 題詩肯弔千年柱, 刷羽堪依十丈蓮. 清轉玉簫臺畔影, 微茫赤壁夢中仙. 山高海闊無消息, 倘記當年玳瑁筵.”

3) 羅世纘, 『松齋遺稿』, 卷1, 「次玉堂失鶴韻」.

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바로 다음 세대 高敬命(1533~1592)의 『次玉堂詠鶴韻(鶴則逸去已久)』⁴⁾으로, 이후 17세기에 朴守儉(1629~1698)의 『次失鶴韻』⁵⁾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목릉성세를 대표하는 17세기 문인들이 지은 詠鶴詩의 이미지 특징도 발견되기에, 그와 비교하여 당대적 특징을 뚜렷이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次玉堂失鶴韻』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먼저 『次玉堂失鶴韻』의 창작 배경으로서 失鶴 시의 연원과 그 맥락을 살펴보겠다. 먼저 1541년 당시 사가독서하던 13인이 湖堂修契하여 학문을 토론하고 失鶴 창수시를 남긴 기록이 있어, 그 안에서 학의 의미 표출에 영향을 끼쳤을 사상적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 중국에서 唐代에 失鶴 시가 성행하여 나타난 사실이 발견되고 이것이 조선 후기 문인들에 의해 題詩되거나 次韻되며 영향을 끼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보다 이른 시기인 16세기 중반 失鶴 시가 등장하는 점에 대해 의의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나서 『次玉堂失鶴韻』의 저작 시기를 그 元韻의 저작 시기부터 추정하여 살펴, 16세기 詠鶴詩를 대표하는 『次玉堂失鶴韻』에 실린 시들을 각기 살펴 이들 전체에서 보이는 학 의미의 특징을 밝힐 것이다. 또한 각 시인들이 이 시 외에도 자신의 문집에 학을 읊은 시들을 여럿 남기고 있어 그것들도 함께 살펴, 16세기 중반 失鶴 시에 나타난 학의 의미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次玉堂失鶴韻』은 기본적으로 羅世纘의 『松齋遺

4) 高敬命, 『霽峯集』, 卷1, 『次玉堂詠鶴韻(鶴則逸去已久)』, “幾向塵籠望遠天, 秋風偷眼海雲邊. 靈姿定化江州橘, 逸翮應追(或隨)太乙蓮. 霜絹謾看留素影, 碧空何處飛鴉仙. 蒼茫華表音蹤斷, 奇事猶傳翰墨筵.”

5) 朴守儉, 『林湖集』, 卷2, 『次失鶴韻』, “叫斷秋風萬里天, 影盤山海渺茫邊. 翻雲雪翮歸丹壑, 刷月霜毛想白蓮. 華表幾年留一語, 碧城何處駕群僊. 遐心不管人間夢, 好向瑤臺舞彩筵.”

稿』卷1에 실린 「次玉堂失鶴韻」으로 하고⁶⁾, 하서의 시는 문집에도 실려 있어 대조, 참조하였다.⁷⁾

2. 「次玉堂失鶴韻」의 창작 배경

1) 1541년 湖堂修禊와 失鶴唱酬

「次玉堂失鶴韻」을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松齋遺稿』附錄에 수록된 송재의 年譜에 1541년의 사실 중 사가독서하며 湖堂修禊⁸⁾를 한 사실을

6) 이 작품의 자세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松齋先生遺稿』, 卷1, 張4b-5b(『韓國文集叢刊』28, 『松齋遺稿』, 54~55쪽), 「次玉堂失鶴韻」/『松齋先生遺稿』, 卷1, 張4ab(『松齋先生遺稿』乾, 초간본, 존경각), 「次玉堂得鶴韻」/『松齋先生文集』, 卷1, 張4b-5b(『松齋先生文集』上, 삼간본, 존경각), 「次玉堂失鶴韻(附元韻, 附次韻)」. 초간본의 제목은 문집초간본과 삼간본의 제목과 조금 다르다. 이들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따로 출처를 밝히는 주석을 달지 않겠다. 참고로 송재의 문집 판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초간본, 존경각 소장, 『松齋先生遺稿』, 英祖52(1777), 4卷 2冊, 11行 22字, 木活字本, 序(宋德相), 跋(李基敬, 羅星五)). 2. 중간본, 존경각·규장각 소장, 『松齋先生遺稿』, 純祖29(1829)刊, 4卷 2冊, 10行 20字, 木板本, 序(宋煥箕), 跋(李基敬, 宋穉圭, 洪奭周)). 3. 추가본, 후손 소장, 문집초간본, 『松齋先生遺稿』, 純祖29(1829)刻[後刷]. 4卷 2冊, 10行 20字, 木板本, 序(宋煥箕), 跋(李基敬, 宋穉圭, 洪奭周, 奇正鎭)). 4. 삼간본, 존경각(雨田文庫)·고대 한적실 소장, 『松齋先生文集』, 1912刊. 7卷 3冊, 10行 20字, 木活字本, 重刊序(崔益鉉), 跋(李基敬, 宋穉圭, 洪奭周, 奇正鎭), 重刊跋(宋秉珣, 羅鍾雲))+후손 羅秉軾의 墓碣銘. 5. 사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간본 저본, 1935刊, 石印本.

7) 하서의 문집에는 하서의 시만 동일하게 실려 있다. 元韻과 다른 문인들의 次韻詩는 없다. 金麟厚, 『河西全集』, 卷10, 「玉堂失鶴韻」.

8) 이 명칭은 王羲之의 「蘭亭修禊」에서 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玉溪詩社」에서 왕희지 난정수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찾았는데, 그보다 이른 시기인 16세기 중반에 그 명칭을 표방한 모임이 있었던 것을 「호당수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철상, 「王羲之 蘭亭修禊의 수용 양상과 詩社에 끼친 영향」, 『한문학보』 제26집, 우리한문학회, 2012, 3~32쪽 참고.

세주로 간략하게나마 기록해놓아 참조가 된다.⁹⁾ 이에 따르면, 그때 12명과 함께 讀書할 것을 修稷하여 性理之學을 토론하고, 『湖堂修稷錄』과 ‘失鶴唱酬詩’를 남겼다고 한다. 여기서 讀書할 것을 修稷하여 性理之學을 토론하였다는 인물은 송재를 포함하여, 崔演, 嚴昕, 宋麒壽, 尹鉉, 任說, 李滉, 林亨秀, 金澍, 鄭惟吉, 李洪男, 閔箕, 金麟厚 등 13명이다.¹⁰⁾ 이 가운데 羅世纘, 李滉, 金麟厚, 林億齡 등이 忍齋 洪暹의 韻에 次韻하여 『次玉堂失鶴韻』을 지은 것을 두고, ‘失鶴唱酬詩’가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토론한 성리학의 내용들은 失鶴 詩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토론했던 성리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朱子大全』이 유입되어 활발히 독서가

9) 羅世纘, 『松齋遺稿』, 附錄, 『年譜·辛丑』, “賜暇湖堂(堂在東湖, 乃國家儲養人才之地, 極選文學之士以充之, 輪番讀書, 與其選者, 榮比登瀛. 先生與退溪李先生, 河西金先生及林錦湖亨秀, 鄭林塘惟吉諸公. 修稷讀書, 討論性理之學, 有湖堂修稷錄及失鶴唱酬詩.)”

10) 송재의 연보 외에도 『松齋遺稿』 부록에 『湖堂修稷錄』이 따로 남아 있어, 함께 수계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羅世纘, 『松齋遺稿』, 附錄, 『湖堂修稷錄』. 이 『湖堂修稷錄』은 崔演의 『艮齋集』, 金麟厚의 『河西全集』, 林亨秀의 『錦湖遺稿』, 宋麒壽의 『秋坡集』 등의 附錄에도 좌목의 상세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같게 수록되어 있다. 崔演, 『艮齋集』, 『艮齋先生年譜補遺』, “湖堂修契, 艮齋崔演·十省堂嚴昕·秋坡宋麒壽·松齋羅世纘·菊磻尹鉉·竹崖任說·芝山李滉·錦湖林亨秀·寓菴金澍·尚德齋鄭惟吉·汲古齋李洪男·好學齋閔箕·湛齋金麟厚.(『湖堂修契錄』).” 金麟厚, 『河西全集』, 附錄, 『湖堂修稷錄(成相公世昌所記)』. 林亨秀, 『錦湖遺稿』, 附錄, 『湖堂修稷錄(嘉靖癸卯成公世昌所記)』. 宋麒壽, 『秋坡集』, 『湖堂修契錄』. 다만, ‘호당수계록’을 기록한 시기와 주도자에 대해서는, 『하서전집』에서 ‘호당수계록’의 제목에 세주로 성세창이 기록하였다고 붙였고, 『금호유고』에서는 1543년이라고까지 밝히고 있어, 실제 호당수계록은 1541년보다 2년 뒤인 1543년 성세창의 주도하에 기록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하여 『湖堂修稷錄』을 통해 당시 대제학이었던 成世昌이 주도하여 修稷하게 된 13명의 號와 姓名, 字, 本貫, 生年과 賜暇하고 급제한 시기, 주요 官職, 그 父親의 官職과 名 등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문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天命圖』와 『天命圖說』에 대해 퇴계와 하서가 함께 관심을 표명하였던 점에 주목하게 된다. 『천명도설』은 1537년 秋巒 鄭之雲이 저술하고 그에 대한 그림을 『천명도』로 남겨 놓았는데, 이는 하서의 『천명도』와 그 시기의 선후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후 1553년 퇴계가 송대 북송의 유학자들의 도설, 곧 주돈이의 『太極圖說』과 邵雍의 『先天圖』 도설 등의 고증을 반영해 秋巒의 『천명도』를 수정하고, 『天命圖說後敍』를 남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1537년 저술된 秋巒의 『천명도설』을 1553년에 퇴계가 철저히 고증하여 밝히기까지, 그 사이에 퇴계가 사가독서를 하고 호당수계를 하였으므로, 그 시기에 독서와 연구, 그리고 교류를 통한 사상 형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한국과 중국에 형성된 ‘鶴 문화’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될 여지를 준다. 한중 학 문화에서는 長生の 仙鶴과 祥瑞로서의 瑞鶴을 구분하는데, 이중 전자의 비중이 크나, 본고에서는 후자가 형성된 배경에 주목하게 된다. 먼저 장생의 선학은 도교적 상상에서 온 것으로, 晉의 『抱朴子』, 『古今注』 등에 나오는 학에 대한 언급에서 장생불로의 선학으로서 의미를 끌어낸 것이고, 祥瑞로서의 瑞鶴은 황제의 선정을 증거 하는 상서로움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상으로서, 宋代 황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곧 송대에 祥瑞로서의 瑞鶴 의미와 조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황실에서 활용되었는데, 이는 天命論에 의거하여 위정자를 위한 정치사상으로서 설정된 것이라 본다.¹¹⁾

11) 고연희, 『한중 영모화초화의 정치적 성격』,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163~174 쪽. 이에 따라 좀 더 부연하면, 장생의 선학과 관련해서 진나라 갈홍의 『포박자』에서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거북과 학은 오래 산다.”고 하여 장수의 상징으로 학을 제시하고 학이 장수하는 방법을 탐구하였고, 최표의 『고금주』에서는 “학은 천년이 되면 깃털은 색으로 변하고, 2천 년 뒤에는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현

여기서 한중의 학 문화가 형성되는 가운데 16세기 중반 옥당에서 失鶴詩가 나타나게 된 데는 전자, 곧 長生の 仙鶴 의미가 학을 읊은 여러 詩에 꾸준히 반영되어, 16세기 失鶴 詩에도 이어져 나타났으리라 예상되나, 후자, 곧 祥瑞로서의 瑞鶴의 의미 형성에 송대 천명론이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 연관하여 특히 주목된다. 여느 시대와 달리 16세기 중반 옥당에서 失鶴 詩를 여러 문인들이 次韻하게 된 데에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 그것이 앞서 살펴본 대로 당시 『天命圖』와 『天命圖說』에 대해 활발한 관심이 표명되었던 것과, 송대 천명론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祥瑞로서의 瑞鶴 의미가 사상적 측면에서 이들 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 16세기 옥당에서 失鶴 詩를 지을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당

학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주나라 왕자진이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간 전설이나, 요동의 정영위가 신선이 된 뒤 고향의 화표주에 학으로 변하여 돌아온 이야기들이 도가서적에 전하고 시문으로 읊어지면서 학의 별칭이 仙客으로 굳어질 만큼 ‘신선계의 새’로 의미가 정착되었기에, 학 문화에서 장생의 선학 의미 비중이 크다고 하였다. 한편 서학에는 학이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仙鶴으로서의 신비와 학 특유의 외양, 곧 백색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瑞鶴의 의미화와 조형화 과정에 仙鶴의 신비화와 조형화가 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서학의 근거 기록은 『尙書大傳』에 실린 순임금의 현학에서부터 찾아진다고 하였다. 순임금이 四嶽을 순수하고 和伯之樂을 연주하고 玄鶴을 춤추게 하였는데, 원래 순임금의 순정한 음악은 『禮書綱目』 등 의례 관련 서적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학의 도래를 상서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로 구실하였고, 宋代 王應麟이 『玉海』에서 황제의 곤륜음악에 元鶴과 靑鶴이 호응한 전설을 서학에 편입하여, 황제의 거문고 소리에 날아든 학 전설이 거문고 음악과 관련한 이야기로 과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대에 이들을 모두 상서의 범주로 포함하여 玄鶴, 靑鶴 등 특별한 학이 선학 또는 서학으로 의미, 신비화되었고, 고려와 조선에서도 과거 시제로 玄鶴문부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또 반고의 『한서』(권6, 무제기)의 기록에는 황제들이 올리는 제사에 白鶴, 群鶴이 나타났음을 기록하였는데, 이처럼 역사서에 기록된 이유는, 도래한 학들이 먼 하늘에서 날아든 신비로운 존재로 의미화된 것으로, 흰 새의 학 무리를 고전적 상서의 전형적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보았다.

시 옥당에서 학을 키웠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일어난 비판의 목소리에서 그 실상을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옥당의 학사들이 억지로 학을 구하느라 생긴 일화와 그 문제를 硏經齋 成海應(1760~1839)의 『蘭室譚叢』에 실린 여러 편의 글에서 볼 수 있고,¹²⁾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덕무의 글에서도 보인다.¹³⁾ 연경재는 또 교리 宋翼孝가 숙직하는데 집이 가난하여 밥을 이을 수 없어 학이 끝내 굶주려 죽자 임금께서 아시고, 송익효를 龍岡縣令에 제수한 일도 소개하였다.¹⁴⁾ 그리고 야생의 학을 사람이 가둬 키우면서 학에게 벌어진 잔혹한 일을 기록하고 경계하기도 하였다.¹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경재는 『玉堂鶴說』에

12) 연경재는 『蘭室譚叢』에 『玉堂鶴』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일화를 기록하고, 또 『玉堂鶴說』이라는 작품도 지어 남겼다. 앞의 글에서는, 옥당에서 기르는 학을 延安에서 구해왔는데 洪益弼이 延安 수령일 때 “학사들이 책은 읽지 않고 학을 구해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라 하였다가 마침 옥당에서 숙직하던 尹勉憲이 상소하여 죄줄 것을 청하였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56, 『蘭室譚叢』, 『玉堂鶴』, “玉堂自古馴鶴, 每檄取延安郡. 洪益弼倅延安, 嘗防求鶴檄曰, 諸學士不讀書, 求鶴何爲. 尹勉憲時直玉堂, 上疏請罪之.”

13) 연안에서 생산되는 학이 밭과 들에서 떼로 울거나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보이고는, 옥당의 학은 白川에서 바치는데 학사들이 학 한 쌍을 요구했다가 군수 모씨가 거절해 파직됐다는 일화이다.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2, 『西海旅言』, “延安之產, 鶴也. 田陂野坳, 叢叢隊隊, 戛然而唳, 翩然而舞. 故事玉堂之鶴, 白川之貢也. 往者諸學士, 移檄白川, 徵鶴一雙, 郡守某拒不從, 仍坐罷.”

14)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57, 『蘭室譚叢』, 『玉堂鶴』, “玉堂馴鶴而無糧, 以入直玉堂朝夕餘飯飼之焉. 值上下番俱空, 院吏將鶴納于閤門外, 上輒賜米豆. 今上甲寅, 校理宋翼孝就直, 而家貧不繼飯, 鶴遂困饑, 上知之, 除翼孝龍岡縣令.” 옥당에서 숙직하면서 조석에 남은 밥을 주어 학을 길렀는데, 상하 번이 다 비었을 때 원의 아전이 학을 데리고 閤門 밖에 들어가면 임금께서 늘 쌀과 콩을 하사하셨던 일화와 함께 금상 갑인년(1794)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15)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57, 『蘭室譚叢』, 『玉堂鶴』, “奎章閣之鶴生子, 輒一雌一雄, 子稍長, 羽翼可拂, 則鶴輒啄其一而殺之, 蓋懼同產之褻也. 比日鶴又產子, 將殺之. 上憐之, 取而置他所. 近侍家有隻鶴, 將而偶之. 雛鶴自奮於石, 至碎首, 終不食而死.” 내용을 간추리면, 규장각의 학이 암수 한 마리씩 새끼를 낳았는데

자세히 풀어놓았다. 여기서는 ‘正宗 乙巳年’과 같이 시기를 명시하여, 그 전부터 옥당에서 학을 키워오면서 당시에 생긴 일화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학을 굶겨 죽인 일뿐만 아니라, 학이 제 새끼를 죽이거나 새끼가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죽은 일까지, 학으로서의 모두 견디기 힘든 일이 결국 인간의 취미를 위해 학의 생태를 거슬러 일어난 일을 다루며, 옥당에서 학을 키우는 일에 대해 비판하고 경계한 것이다.¹⁶⁾ 같은 맥락에서 이보다 전에, 옥당에서 학사들이 학을 편애하여 키운 풍조를 비판한 자성의 목소리가 申晷(1628~1687)의 詩에서도 보인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후기의 비판이 16세기 옥당에서 학을 키운 사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후로 계속되면서 축적된 폐해에 대한 것이기는

데 새끼가 자라자 학이 한 마리를 쪼아서 죽인 일을 두고, 대개 형제끼리 親狎할까 두려워한 것이라 하고는, 이날 학이 또 새끼를 낳고 죽이려 하자 임금께서 불쌍히 여겨 데려와 다른 곳에 두었는데, 신하의 집에서 학 한 마리를 데려와 짝을 삼아주었으나 어린 학이 스스로 돌에 부딪쳐 머리가 부서지는 데 이르자 마침내 먹지 못하다가 죽었다는 일화이다.

- 16) 成海應, 『研經齋全集』, 續集, 冊11, 文三, 『玉堂鶴說』, “弘文館一稱玉堂, 舊養二鶴, 館官朝夕飼飯餘, 鶴故馴人, 每館官進講詣閣, 鶴導之前行. 館官有時不就直, 或經旬鎖館, 鶴至餓死. 輒文移延安府, 捕來, 延安之產, 最良故也. 正宗乙巳, 上聞玉堂鶴餓死, 命空館日, 吏詣閣外, 請頒鶴料, 太倉量賜米豆, 遂爲玉堂故事, 內閣隣於玉堂, 倅直官嘗爲余言, 玉堂鶴有時詣內閣廁中, 啄溷穢食之, 豈鶴糧多乾沒者, 不能繼耶, 抑館中清貧, 雖朝夕餘飯, 亦不能充其饑耶, 何昔之鶴, 能餓死而不啄溷穢, 今之鶴, 不能餓死, 而啄溷穢耶. 彼雖微物, 貞瀆之分乃如此, 不亦可歎乎哉. 內苑之鶴, 生子一雌一雄, 子稍長, 羽翼可拂, 則鶴輒啄其一而殺之, 蓋懼同產之或褻也. 正宗時, 鶴產子, 將殺之. 上憐之, 置其子他所. 有隻鶴, 將偶之子鶴, 自奮碎首於石, 終不食而死. 若是者, 雖未離於禽, 其義則求之人而未易得者也. 今之人有能惡無別而割其慈, 不之悔者乎. 有能順親命而不二, 視死如歸者乎. 聖人之恩, 及於微物又如此, 古昔靈沼之鳥, 言其潔也. 驕虞之玃, 言其孽也. 篤於倫而嚴於別者, 未之有聞也. 物之產於盛時者, 固有異也歟.”

- 17) 申晷, 『汾厓遺稿』, 卷1, 『釋褐錄』, 「次崔學士周卿玉堂失鶴韻」, “學士偏憐汝, 依人歲已深. 居然辭舊侶, 何處作羈禽. 影斷瑤池月, 棲空琪樹林. 從今直夜夢, 無復警清音.”

하지만, 16세기에도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이자 철새인 학을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까이 두려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유하고 있었다. 본고에 서는 옥당에서 학을 키운 사실로 인해 조선 후기에 심한 비판이 나오기 전인 16세기 당시, 그리고 이전과 달리 천명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 이들 옥당 문사들에게 궁중에 머물던 학이 어떠한 의미였고, 그 학이 떠나간 것[失鶴]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이전 시대와는 물론, 다음 시대와도 다른 점이 있었던 것에 주목하여, 『次玉堂失鶴韻』의 元韻이 되는 인재의 시와 그 차운시들에 대해 그 저작 시기를 고려해가며 하나씩 살펴보겠다. 그 전에 중국에서 失鶴 詩가 성행했던 당대 시인들의 작품과 그 영향을 받아 조선 후기에 차운시들이 나타나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唐代 失鶴 詩의 성행과 영향

失鶴 시는 일찍이 중국 唐代 李白(701~761)¹⁸⁾, 劉禹錫(772~842)¹⁹⁾, 白居易(772~846)²⁰⁾ 등의 시인들에게서 보인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盛唐 때 白居易의 五言律詩로 된 失鶴 시를 살펴보겠다. 백거이가 杭州 刺史를 마치고 낙양으로 돌아와 左庶子가 되어 履道里에서 吏隱 생활을 할 때 작은 莊園을 경영하며 그곳에서 학과 닭, 거위, 앵무, 원앙 등을 키웠는데, 특히 학을 가까이 하며 학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 글들을 많이 남겼고, 아끼던 학이 날아가자 안타까운 심정을 失鶴 시에 남겨 놓았다. 이

18) 작품은 있을 것이나, 원운은 찾지 못했다.

19) 劉禹錫, 『失鶴』, “華表千年一鶴歸, 凝丹爲頂雪爲衣. 星星仙語人聽盡, 卻向五雲翻翅飛.” 『欽定四庫全書』, 『古今事文類聚後集』, 卷42, 宋 祝穆 撰, 羽蟲部.

20) 白居易, 『白香山詩集』, 『失鶴』, “失爲庭前雪, 飛因海上風. 九霄應得侶, 三夜不歸籠. 聲斷碧雲外, 影沈明月中. 郡齋從此後, 誰伴白頭翁.”

시에서는 원관념인 학이라는 시어는 쓰지 않고, ‘눈[雪]’이라는 보조관념으로 학을 표현하면서, 知己를 잃은 듯한 슬픔과 허전함을 드러냈다.²¹⁾

이후 晚唐 때에도 失鶴 詩가 활발히 지어져, 薛能(817추정~880)²²⁾, 韓偓(840~923)²³⁾, 李遠(?~?)²⁴⁾, 李羣玉(?~?)²⁵⁾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로써 唐代에 失鶴이라는 詩題가 유행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가운데 이원의 失鶴 詩는 膾炙되면서 畫題로도 등장하여, 조선 후기 檀園 金弘道(1745~?)의 「飛鶴圖」와 「金泥竹鶴圖」에 題詩되었다. 먼저 「金泥竹鶴圖」는 단원이 44세 되던 1788년,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李遠 失鶴 詩의 頸聯과 尾聯을 자필로 써놓은 것이다.²⁶⁾ 「飛鶴圖」는 화면 중앙에 있는 나무 덩불에서 날아오른 학이 화면 밖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그림으로, 이원의 詩 끝부분인 “華表柱頭留語後, 更無消息到如今.”을 제시하여 떠난 학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전달한다고 풀이된

21) 俞炳禮, 「백거이 시에 나타난 학의 이미지」,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연구회, 1997, 134~141쪽 참조.

22) 薛能, 「失鶴二首」, “偶背彫籠與我違, 四方端佇竟忘歸。誰家白日雲間見, 何處滄洲雨裏飛。曾啄稻梁殘粒在, 舊翹泥潦半蹤稀。憑人轉覺多相誤, 書道幡然作令威。又, 華表翹風未可期, 變丁投衛兩堪疑。應緣失路防人損, 空有歸心最我知。但見空籠拋夕月, 若何無樹宿荒陂。不然直道空高外, 白水青山屬臘師。”『欽定四庫全書』, 「古今事文類聚後集」, 卷42, 宋 祝穆 撰, 羽蟲部。

23) 韓偓, 「失鶴」, “正憐標格出華亭, 況是昂藏入相經。碧落順風初得志, 故巢因雨卻聞腥。幾時翔集來華表, 每日沉吟看畫屏。爲報雞羣虛妬疾, 紅塵向上有青青。”『欽定四庫全書』, 「古今事文類聚後集」, 卷42, 宋 祝穆 撰, 羽蟲部。

24) 李遠, 「失鶴」, “秋風吹却九臯禽, 一片閑雲萬里心。碧落有情應悵望, 青天無路可追尋。初來白雪翎猶短, 欲去丹砂頂漸深。華表柱頭留語後, 更無消息到如今。”『欽定四庫全書』, 「古今事文類聚後集」, 卷42, 宋 祝穆 撰, 羽蟲部。

25) 李羣玉, 「失鶴」, “瑤臺烟霧外, 一去不回心。清海蓬萊遠, 秋風碧落深。隳翎留片雪, 雅操入孤琴。豈是籠中物, 雲羅莫更尋。”『欽定四庫全書』, 「古今事文類聚後集」, 卷42, 宋 祝穆 撰, 羽蟲部。

26) 金宗憲,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590쪽, 각주 32) 참조.

다.²⁷⁾ 이처럼 이원의 시에서나 이를 제시한 단원의 그림에서 볼 때, 失鶴詩의 鶴에는 화표주 고사를 바탕으로 떠나간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대 失鶴詩에 대한 次韻詩도 지어져 조선시대 17세기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南漢紀(1675~1748)가 李白의 韻을 다시 次하여 詩『失鶴歎, 復次李白韻.』를 짓고²⁸⁾, 朴允墨(1771~1849)이 項斯의『失鶴』詩 元韻을 次하여 지은 두 수의 詩『失鶴次項斯元韻二首』가 남아 있어²⁹⁾ 唐 시인들의 失鶴詩를 조선 후기에 문인들이 次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처럼 唐代 시인에게서 失鶴詩가 활발히 지어졌고, 그것이 조선 후

27) 김민정, 『檀園 金弘道の 花鳥畵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4쪽, 각주 64) 참조.

28) 南漢紀, 『寄翁集』, 卷1, 『失鶴歎, 復次李白韻.』, “夙懷歸田志, 擬放籠中鵬. 況爾青田姿, 羈絆同我顏. 皓翮一夕飛, 雪點杳雲間. 稻粱亮非願, 塵表自在閑. 西園曠不窺, 獨睡夢家山. 何許羽衣客, 笑我猶未還.”

29) 朴允墨, 『存齋集』, 卷1, 『失鶴次項斯元韻二首』, “瘦骨清姿胎化禽, 白雲何處放遐心. 那期緱氏山頭見, 惟許蘇仙夢裏尋. 衣雪幾調新皜潔, 頂砂應戴舊紅深. 秋風一夜能回翮, 莫待千年說古今. 豈向嘈啾伴野禽, 遐標自得九臯心. 天長萬里空相望, 海闊三山不可尋. 苔徑印蹤惟月在, 松壇遺羽但雲深. 未知仙苑歸何日, 雨夜霜晨寂寞今.”

30) 이를 통해 역으로 李白의『失鶴歎』과 項斯의『失鶴』이란 詩가 있었으리라 추정되고 전자는 五言律詩에 ‘刪’ 韻을, 후자는 七言律詩에 ‘深’ 韻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원운은 찾지 못했다. 당대 대표적인 시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 『全唐詩』에도『失鶴』이라는 제목을 한 작품은 위에서 든 白居易, 薛能, 韓偓, 李遠, 李羣玉의 다섯 작품만 있다. 다만 『全唐詩』, 卷554에는 향사의『病鶴』이란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唐詩 가운데 詠物詩만 뽑아놓은 刊寫者 未詳의『唐詩詠物』이란 책에도 실려 있다. 여기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설능과 이원의 失鶴詩도 실려 있고, 이 외에도 白居易의『池鶴二首』, 李紳(772~846)의『億放鶴』등이 실려 있어, 당시 영물의 대상으로 학이 시인들의 주된 소재가 되었음을 알려 준다. 刊寫者 未詳, 『唐詩詠物』(筆寫本, 奎章閣 所藏, 一石文庫) 참고.

기에는 題詩되거나 次韻되는 등의 경향을 보여 그 영향 관계가 짐작된다. 단,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玉堂에서 여러 문인이 이를 시제로 창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처럼 次韻이나 題詩의 형태를 보이는 등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찾을 수 없으나, 떠나감에 대한 애상의 정조를 기본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意想의 차용이 발견되고, 이것이 조선 후기보다 이른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파악된다.³¹⁾ 게다가 16세기 중반의 옥당에서 지은 失鶴 詩는 단지 唐代 失鶴 詩의 題材 공유와 意想 차용에만 그치지 않고,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학의 의미에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3. 「次玉堂失鶴韻」에 나타난 학의 의미

앞서 한중에 형성된 학 문화의 특징에서 보았듯이, 「次玉堂失鶴韻」에 나타난 학도 기본적으로 장생의 선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31)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이들의 失鶴 詩 이전에 失鶴을 제목으로 하여 지은 詩로는 조선시대에 文敬全(1457~1521)과 金克成(1474~1540)의 詩 각 한 수씩뿐이었다. 文敬全, 『滄溪集』, 卷1, 「失鶴」, “雕籠馴養舊靈禽, 底事纔爲有野心. 隻影丹霄留不得, 片雲青壁邈難尋. 臨臯夢斷星霜轉, 遼海天寒歲月深. 千里寂寥音信絕, 可憐思古更傷今.” 金克成, 『憂亭集』, 卷3, 「蕭給事中顯失鶴」, “莫招雙鶴五雲東, 野逸仙姿兩意同. 已脫簪纓從眼白, 肯隨塵網側頭紅. 月明人靜歸華表, 海闊風恬理釣筒. 金鼎丹成緣再合, 巖山頂上有前蹤. 蕭白號海鈴, 故及之. 矢上人間任所之, 雪衣砂頂屬清思. 分明舞影留銅鏡, 寂寞秋園廢飲池. 得喪悲歡驚易老, 升沈聚散豈無時. 君身自是中人鶴, 何用區區歎別離.” 단 본고에서 다루는 「次玉堂失鶴韻」의 바로 다음 시대에 지어졌으리라 추정되는 鄭賜湖(1553~1616)의 失鶴 詩가 있으나 그 영향관계-次韻, 詩體, 意想 등-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鄭賜湖, 『禾谷集』, 卷1, 「失鶴」, “三年呼喚若朋僚, 此日鸞飛向碧霄. 獨坐秋堂無意況, 一庭深鎖更寥寥.”

이 詩에서 학은 옥당이라는 궁중의 한 공간인 독서당에서 상서로서 서학의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 더하여 당시 사가독서자들이 신선과 같은 학과 자신을 동일시, 비상하고픈 정신적 추구의 대상으로서 그려낸 데 특징이 있다. 이는 송대 천명론에 기반 하여 형성된 상서의 서학 의미가, 『天命圖』와 『天命圖說』 등으로 사상적 관심을 표명한 16세기 중반에, 옥당의 학사들이 지은 失鶴 詩에 반영되었으리라는 추정에서 가능한 해석이다.

이에 『松齋遺稿』에 실린 『次玉堂失鶴韻』에 忍齋 洪暹의 元韻이라고 부기한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작 시기부터 살펴보고, 시에 나타난 학의 의미를 보겠다.

1) 元韻의 저작 시기와 학의 의미

『次玉堂失鶴韻』의 元韻은 언제 지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 인재의 元韻이 지어진 때와 그 시를 次韻한 시기가 같은지 다른지도 알 수 없다. 비슷한 시대의 인물들이지만, 같은 때, 한자리에서 지어진 詩가 아닐 수 있고, 次韻詩는 인재의 원시보다 한참 뒤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 次韻詩는 물론 1541년 호당수계를 하면서 수계한 이들에 의해 지어졌으리라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대는 물론, 계절이나 월까지는 미상이다. 이 詩들이 인재의 詩에 次韻한 것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정작 인재의 문집인 『忍齋集』에는 수록되어 있지도 않고, 次韻한 이들의 詩도 金麟厚의 『河西全集』을 제외하고는 李滉과 林億齡의 문집에도 들어 있지 않아, 이황의 경우는 『松齋遺稿』에서 발견해 뒤늦게 拾遺作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던 것이다.³²⁾

이에 우선 인재의 元韻이 지어진 때부터 추정해보겠다. 인재는 1534

32) 정석태 편저,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1, 퇴계학연구원, 2001, 233~237쪽.

(중종 29)년 31세에 賜暇讀書하였고, 1535(중종 30)년 김안로의 무리인 許沆에게 뜻이 저촉되어 興陽에 유배되었다가, 김안로 敗死 이후인 1537(중종 32)년 34세에 귀양살이가 풀려 修撰이 되고 도중 지평에 올라 예전처럼 賜暇讀書하였다.³³⁾ 그 후로 인제가 언제까지 사가독서를 하였는지는 미상이나, 실록에 따르면, 처음 사가독서한 1534년부터 따져도 1543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⁴⁾ 따라서 1541년에도 인제가 사가독서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제는 연보와 실록에서 司諫院大司諫에 제수된 사실이 확인된다.³⁵⁾ 그렇다면 이는 『大典會通』에서 명시된바, 사가독서에 관한 규정에 ‘통훈 이하의 문신으로 문학이 특이한 자’로 정한 것-여기서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 이하는 허용하는 최고품계를 명시한 것-을 고려할 때, 인제가 이해 3월에 제수된 가장 낮은 품계인 ‘司諫院大司諫’이 이미 정3품 당상관이므로, 사가독서할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려준다. 결국 인제는 이 해가 되기 이전까지 사가독서를 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제가 1535년 귀양 간 곳에서 자신을 학에 비유해 지은 詩를 후대에 송재 등이 그를 기리며 次韻한 것일 수 있다. 인제의 元韻을 보아도 尾聯에서 학을 인간에 귀양 온 신세로 여기고, 임금 곁에 있을 만하다[謫墮人間渠不俗, 蹢躅當傍草綸筵.]고 한 데서, 귀양지에 있던 자신을 학에 비유하였음이 드러난다. 또 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려 뒤에 귀양지에서 돌아와 사가독서하면서 지었

33) 洪暹, 『仁齋集』, 문충 해제, 행력 참고.

34) 『明宗實錄』, 권23(명종 12년(1557) 9월 14일(갑자) 1번째 기사), 洪暹曰: “小臣在中廟朝, 被選書堂, 幾至十年. 其時勸勵之方, 至矣.” 여기서 인제 자신이 중종조 때 10여년을 사가독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5) 『中宗實錄』, 권94(중종 36년(1541) 3월 16일(임인) 3번째 기사). 또한 李好閔이撰한 연보에 따르면 이 해에 인제는 司諫院大司諫, 成均館大司成, 吏曹參議로 옮기고, 겨울에 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된다.[辛丑, 遷司諫院大司諫, 移成均館大司成, 遷吏曹參議. 冬, 拜承政院同副承旨.]

우리라 추정할 수도 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당수계를 맺은 이들이 次韻詩를 지었을 1541년 이후에는 이미 인재의 벼슬이 사가독서자의 자격을 넘어서고 있어 결국 그 이전에 지었으리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재는 1534(중종 29)년 31세에 賜暇讀書하고, 김안로 패사 이후 곧, 1537(중종 32)년 34세에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修撰이 되고 도중 지평에 올라 다시 예전처럼 賜暇讀書하였다. 인재가 사가독서 한 시기는 앞서 1541년에 수계하였다고 언급한 호당수계인들보다 이르게는 10여년, 늦어도 4년은 빠르다. 미리 사가독서하고 있던 인재가 옥당에서 지은 失鶴詩가 뒷날 이들 1541년 이후 호당수계인들에게 次韻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제 세부적으로 계절까지 추정해보면, 인재의 詩는 ‘秋風’으로 시작하여, 가을의 정취를 볼 수 있고, 이를 次韻한 석천의 詩에서는 마지막에 ‘涼露濕秋筵’과 같은 표현에서 가을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인재와 석천 失鶴詩의 본문 내용에 가을이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 하여, 가을을 반드시 계절적 배경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학은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을에 돌아왔다가 봄에 북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떠나가는 이미지가 강한 새로, 그 배경을 가을로 취하였을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인재의 失鶴詩에서 학이 ‘옥당을 쫓겨난 선비’라 했을 때, 그 상실감을 서늘하고 쓸쓸한 가을의 정취에 의탁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재와 석천 詩의 본문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절까지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元韻의 경우 1541년 이전, 좁게는 1535년 인재가 귀양지에서, 또는 이후 1537년 다시 사가독서를 하게 되면서 자신을 학에 비유해 짓고, 그 詩의 운자와 의상을 차용하여, 1541년 이후 송재를 비롯해 퇴계, 하서 등 호당수계인들이 次韻하여 詩를 지었으리라 추정된다. 계절

이나 월일까지 추정은 무리이나, 다만 저작 시기는 추정되는 한 가장 이른 시기로 밝힌다고 한다면 이때를 저작 시기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면 먼저 『次玉堂失鶴韻』에 실린 忍齋 洪暹의 元韻을 살펴보자.

秋風直欲度長天, 추풍에 곧장 긴 하늘 지나려고 하였는데
 誤落西清古沼邊. 잘못하여 서청의 옛 못가에 떨어졌다네.
 便覺素翎勝白雪, 흰 날개가 백설보다 나음을 문득 깨닫고
 更將丹頂鬬紅蓮. 다시 丹頂을 가지고 紅蓮과 다투네.
 未忘華表當時活, 華表에 당시 살아 있음을 잊지 못하고
 曾化蘇耽舊日仙. 일찍이 蘇耽이 옛날의 신선으로 화하였도다.
 謫墮人間渠不俗, 인간에 귀양 와 어찌 속되지 아니하는가,
 蹠躡當傍草綸筵. 춤추며 임금님 잔치 곁에 있을 만하도다.

위에서 丹頂은 학의 붉은 정수리로, 그 색과 모양이 붉은 연꽃과도 같아 紅蓮과 다투다고 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볼 하서의 시에서는 이를 ‘十丈蓮’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紅蓮은 한편 재상 대신의 막부 또는 훌륭한 막료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쥘 나라 宰臣 王儉의 막하에 훌륭한 인재가 많이 들어간다 하여 蓮花池라 부르고, 특히 선정으로 소문난 庾杲之가 王儉 막부의 책임자로서 칭송받은 데서 나온 것이다.³⁶⁾ 당시 인제가 김안로에 의해 유배 갔다가 다시 조정 돌아와 옥당에서 사가독서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그에 대비하여 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곧 인재 자신 또한 훌륭한 인물로서 옥당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와, 다시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능력을 펼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을

36) 『南史』, 卷49, 列傳 第39, 「庾杲之(叔父華)」.

즐기며 그린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인재의 元韻을 次韻한 송재, 하서, 퇴계, 석천에게서는 어떻게 이어져 나타나는지, 이 詩 외에도 이들이 학을 소재로 한 詩들도 참고로 할 때, 이들 간에 공유되는 점과, 각기 다른 특징에 대해 자세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次韻詩에 나타난 학의 의미

먼저 송재의 失鶴 詩를 살펴보겠다.

誰報青綾別占天, 누가 청릉에 따로 하늘이 있다던가,
 暫辭玄圃落池邊. 잠시 현포를 사양하고 못가에 떨어졌다네.
 乍驚清夢風鳴竹, 잠깐 맑은 꿈 놀래니 바람이 대를 울리고
 初吐長音露瀉蓮. 처음 긴 소리 뿜으니 이슬이 연꽃에 쏟아지도다.
 學舞寧將尋帳客, 춤을 배움에 어찌 帳客을 찾아가리오.
 聞琴直欲伴詩仙. 거문고 들으니 바로 詩仙을 짝하고자 하도다.
 憑渠不問乘軒事, 너에게 수레 타는 일을 묻지 않는 것은
 却恐含羞傍侍筵. 도리어 부끄러움을 머금고 자리를 가까이할까 두려워
 서라네.

이 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은 신선의 사신 같은 것이다. 거문고를 듣고 있으면 더욱 속세를 잊기 마련이다. 옥당에도 이런 학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글하는 선비의 본지를 기리는 일로 보아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³⁷⁾라고 해석하였으나, 여기서 학 ‘그림’이 아니라 ‘실제’ 옥당에서 키운 학이라는 것은 월정의 만록에서도 밝혀졌다.

37) 이병기, 『송재 나세찬의 근체시에 대하여』, 311~314쪽.(박준규·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291~327쪽.)

다만 학을 통해 선비의 본지를 기리고자 했다는 의도를 간과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시 詩를 보면, 首聯에서 靑綾과 玄圃로 청과 현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학과 관련하면 靑鶴과 玄學을 연상시킨다. 곧 학이 천 년 뒤에는 푸른색으로 변하고, 2천 년 뒤에 흑색으로 변한 것을 현학이라 하여³⁸⁾, 현학은 곧 長壽를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청룡에 하늘이 따로 있지 않고, 현포를 사양해 못가에 떨어졌다고 하여, 그만큼 오래 살아 신령해진 학이 하늘에 있지 않고 잠시 인간 세상에 머물게 된 상황을 설정하여 보여준 것이다. 이는 미련에서 학에게 수레 타는 일을 묻지 않는다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 학이 궁중, 그것도 임금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또 함련의 竹과 蓮은 학과 함께 짝으로 등장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학의 모양과 색을 비유하여 표현할 때도 쓰이는 사물이다. 그리고 경련에서 춤과 거문고를 등장시켜 이들이 모두 학과 짝하는 신선과 같은 몸짓과 선율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학이 잠시 인간 곁에 머물렀으나, 다시 높이 신선을 향해 떠나갔음을 암시해준다.

이 외에 송재가 남긴 詠鶴詩들을 더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학의 의미를 연관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송재 詩에서 학은 두 번 나오는데,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지은 賦 작품과, 고향에 내려와 ‘학령’이란 마을 명소에서 읊은 詩에서이다. 먼저 詩 못지않게 賦에 능했던 송재의 부 작품부터 살펴 보겠다. 송재는 서울에서 벼슬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故鄉을 떠난 지 1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며, 張衡(字 平子, 78~139)의 『歸田賦』에 次韻하여 賦(『次張平子歸田賦』)를 지었다.³⁹⁾ 곧 귀향하여 지은 위의 詩를 짓기 전이다. 이 詩 속에서 ‘십년 전 고향 새들이, 꺾가에 嚶嚶하도다.

38) 崔豹, 『古今注』, 『鳥獸』, “鶴千歲則變蒼, 又二千歲變黑, 所謂玄鶴也.”

39) 羅世繼, 『松齋遺稿』, 卷1, 『次張平子歸田賦』.

[十年鄉禽, 耳邊嚶嚶.]’는 표현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⁴⁰⁾ 또한 詩의 마지막에서 ‘내가 성곽을 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강물의 이와 같음에 어찌하랴.[吾負郭而不歸, 其奈江水之有如.]’라 한 데서 송재가 38세 봄에 벼슬을 해직하고 고향에 내려가기 전, 그러한 마음을 먹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 한다. 송재가 次한 張衡의 『歸田賦』에 대해, 文選의 歸田賦 註에 “平子是 張衡의 字인데, 벼슬길에 나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전원으로 돌아가려고 이 부를 지었다.”라고 한 데서도, 송재가 평자의 심정에 의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詩 중간에 “진실로 行藏은 命에 맡기암으니, 어찌 江山을 내가 사양하리오[信行藏之由命, 孰江山之我辭.]”라 한 데서 命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인다. 이는 추정이기는 하지만, 앞서 한중 학 문화에서 언급한 바, 여기서 송대 주자의 신유학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발달한 天命論과 관련하여 祥瑞의 瑞鶴으로서 학의 의미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송재가 직접 『天命圖』와 『天命圖說』에 관한 연구를 남긴 것은 아니나, 호당에서 수계한 이들과 성리학을 토론하였고, 당시 『朱子大全』의 유행으로 주자학에 대한 독서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을 바탕으로, 송대에 왕실의 기반을 제공했던 신유학의 천명론이 조선 중기에도 자연스럽게 다시 새겨져 송재와 같은 시인들에게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보인다.

또 이어서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리오, 華亭에서 학이 우는도다.[盍歸乎來, 華亭鶴鳴.]”란 데서는 陸機(260~303)의 고사로 화정의 학 소리가 즐겁던 때, 곧 자연의 소리로 차용된 것이 발견된다. 육기는 화정에서 학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이 피살될 때 탄식하였다고

40) 송재의 연보에 따르면, 송재 27세 가을에 향시 생원 초시, 28세 2월 21일에 생원 회시에 합격하고 29세에 성균관에 머물며 학업을 익혔다고 하였으므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지낸 29세 이후로만 보아도 송재 38세가 10여년이 되는 해이다. 羅世繼, 『松齋遺稿』, 卷4, 附錄上, 『年譜』 참조.

한다.⁴¹⁾ 또한 화정이란 곳은 백거이가 항주자사를 맡고 돌아왔을 때 금은 보화를 얻은 게 아니라 화정에서 학 마리를 얻었다⁴²⁾고 한 기록이 있는데, 정작 문인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인 학이 있던 곳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어서 송재 38歲, 곧 1535年(中宗 35)에 벼슬을 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洞中の 八景詩를 지어 寓意하였다는 작품을 보자.

九臯獨棲處, 九臯는 홀로 깃들인 곳이거니
誰遣翠濤來. 누가 푸른 물결소리 보내 왔다.
天寒聞更遠, 찬 하늘에 다시 아득히 들려오니
恐曳棟樑材.棟樑의 材木 흔들릴까 두렵다.⁴³⁾

위 시는 끝에 “오른쪽은 鶴嶺에서 소나무 소리를 들음.[右鶴嶺聽松.]”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鶴嶺’은 송재가 거처한 나주 거평동⁴⁴⁾의 여덟 명소 중 한 곳임은 분명하나 정확한 지명은 미상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병기는 이곳을 학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풀이하여, 처음에 들려온 소리는 물결 소리이고, 찬 하늘에 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학의 소리라 풀

41) 『晉書』, 『陸機傳』, 『蒙求』, 『士衡患多』, “晉陸機字士衡, 吳郡人, 大司馬抗之子. 身長七尺, 其聲如鐘. 少有異才 文章冠世. …機歎曰, 華亭鶴唳豈可復聞乎. 遂遇害.”

42) 白居易, 『白香山詩集』, 『洛下卜居』, “三年典郡歸, 所得非金帛, 天竺石兩片, 華亭鶴一隻.” 俞炳禮(1997), 위의 논문, 136쪽 참조.

43) 羅世繼, 『松齋遺稿』, 卷1, 『居平洞八景』.

44) 김진중, 『팔경시와 송재의 '거평동팔경'』, 203쪽(박준규·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203~226쪽.) 이에 따르면, 송재가 나주 거평동 남촌리에서 태어났고, 거평동은 나주 문평면의 거평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鄭道傳의 『消災洞記』에서는, 거평동은 ‘나주 회진현(會津縣)의 부목 이름’이라 하였다. 『東文選』, 권77, 『消災洞記』(鄭道傳), “道傳, 賃居消災洞黃延家. 洞卽羅屬部曲居平之地, 有寺曰消災, 故以爲名. 環洞皆山也, 而其北東, 則重巒疊嶺, 形勢相屬, 西南諸峯低小, 可以眺望. 又其南原野平衍, 樹林煙火, 茅茨十餘戶, 乃會津縣也.”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羅州牧에서도 동일하게 회진현이라 하였다.

었다.⁴⁵⁾ 그런데 이종찬은 “소나무는 추울수록 제빛을 발한다. 그러기에 멀리 들린다.”라 하여, 애초부터 소리는 ‘소나무 소리’로 보았고, 더하여 “멀리 들리는 소리는 좋지만, 이 동량재가 알려져 남의 탐냄이 될까 두렵다. 은연중에 자신의 기개를 암유한 느낌이다.”⁴⁶⁾라 풀이하여, 두려워하는 주체가 송재 자신이라 하였다. 학령에서 소나무 소리를 듣는다는 제목을 볼 때, 학령이 단지 지명이 아니라 학이 많이 있는 곳이고, ‘푸른 물결소리’를 학이 1천년을 살면 변한다는 푸른 학[靑鶴]의 울음소리로 푼다면, 반드시 푸른 소나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시에서는 학의 울음소리인지 소나무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낸 소리라 했을 때, 그 둘의 의상이 함께 깊이를 더하여 표현한 시인 자신의 형상이라 보인다.

다음 퇴계의 失鶴 詩를 보자.

誰遣丈人墮九天, 누가 丈人을 보내 구천에 떨어뜨렸나
絲寒縈足繞欄邊. 찬 실로 발을 매어 난간 주변에 둘렀구나.
戲遊爽地寧同鷺, 고상한 땅에 노닐며 어찌 따오기와 함께 하랴,

45) 이병기, 『송재 나세찬의 近體詩에 대하여』, 295쪽.(박준규·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291~327쪽.), 여기서 이 시가 “구중심처에서는 물소리조차 시끄럽게 들리는데, 하물며 학의 소리야 시끄럽지 않겠는가. 바위 같은 굳건한 지조로 사는 사람들에게 애처로운 학의 소리는 마음을 흔들어대지 않을까 두렵다는 연민의 정이다.”라 하였다.

46) 이종찬, 『송백같이 강의했던 송재의 문학』, 157~158쪽.(박준규·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139~168쪽.) 그대로 들면 다음과 같다. “학령이라 했으니 학이 사는 고개였나 보다, 거기에 솔바람을 듣는다는 것이다. 九臯는 학이 사는 곳이다. 학은 고고하다. 그러기에 외롭다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푸른 물결을 보냈다. 소나무의 푸르름을 말한 것이다. 소나무는 추울수록 제빛을 발한다. 그러기에 멀리 들린다. 멀리 들리는 소리는 좋지만, 이 동량재가 알려져 남의 탐냄이 될까 두렵다. 은연중에 자신의 기개를 암유한 느낌이다.”

驚報寒更欲替蓮. 찬 밤을 겨우 지내니 연꽃 시들려고 하는구나.
 間裏好隨鑾殿客, 한가한 때 종이 金鑾殿의 손님을 따르고,
 夢中眞見雪堂仙. 꿈속에서 참으로 雪堂의 신선을 보겠도다.
 凌風一舉尋無跡, 한 번 바람을 놀려도 찾을 곳 없으니
 遼海茫茫月滿筵. 아득한 바다 망망하고 달만 자리에 가득히 차네.

시 중간에 학의 평소 행동을 관찰하고 상상하여, 한가한 때는 玉堂의 文士를 잘 따르고, 꿈속에서는 神仙과 같은 蘇軾을 진짜 볼 것이라 그려 낸 대목이 인상적이다. ‘鑾殿客’에서 ‘鑾殿’은 ‘鑾殿殿’으로 唐代에는 翰林院을 일컬었고, 금란전의 손님은 翰林學士를 가리켰으므로, 여기서는 당시 퇴계를 포함한 玉堂의 문사들을 말한 것이라 보인다. ‘雪堂仙’은 소식을 가리킨다. 『후적벽부』에서 雪堂은 소식이 黃州로 쫓겨나와 있을 때 지낸 집이라 하여, 소식의 별칭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퇴계에게서 옥당의 학은, 곧 궁중 안에서 잘 지내는 학으로 상서로운 서학의 의미뿐만 아니라, 꿈에서라도 신선을 보는 장생의 선학 의미까지 담겨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던 학이, 그러나 마지막에서 날아가 버려 텅 빈 듯한 애달픈 심정과 막막함을 달래며 마무리하였다.

또한 퇴계가 학을 읊은 다른 詩로 『陶山雜詠』 가운데 『鶴汀』이라는 작품에 대해 고증한 退溪先生文集攷證을 보면, 제목 옆의 세주로 달린 글에 학과 관련한 여러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 중 특히 詩 본문 마지막 구절인 ‘得處莫留停.’은 邵雍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혀놓은 점이 주목된다.⁴⁷⁾ 이는 『先天圖』를 고증한 소옹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퇴계가

47) 李滉, 『退溪集』, 『退溪先生文集攷證』, 卷2, 第三卷詩, ‘鶴汀’, “壺愼媒弄.(陸龜蒙鶴媒歌, 盤空野鶴忽然下, 背翳見媒心不疑. 媒閒靜立姑無事, 清唳時時入遙吹. 君不見荒坡野鶴陷良媒, 同類同聲眞可畏.)……得處莫留停.(康節曰, 快意事不可做得, 便宜處不可再往, 得意處須早回頭.)” 먼저 ‘鳴臯聞天’은 『詩經』의 ‘鶴鳴’에

『天命圖』를 수정한 사실과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 관계가 도출되는 대목이다.

다음 하서의 失鶴 詩를 살펴보겠다.

悔放殊姿送遠天, 어찌자고 학을 놓아 먼 하늘로 보냈던고
只今蹤跡寄何邊. 지금은 네 발자취 어디에 부렸느냐
留詩肯弔千年柱, 천년이라 화표주에 조시를 남겼거니
刷羽堪疑十丈蓮. 깃 칠 적엔 아무래도 열 길의 연꽃인 듯.
淸轉玉簫臺畔影, 옥통소 대 기슭에 해맑은 그 그림자
微茫赤壁夢中仙. 적벽강 꿈 가운데 아득한 신선 모습
山高海闊無消息, 산 높고 바다 넓다 소식이 끊겼으니
倘記當時玳瑁筵. 당시의 대모연을 혹시나 기억할지.

이 詩는 마지막에 ‘玳瑁筵’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詩가 옥당이라는 공간에서 지어졌음을 알려준다. 이는 ‘玳瑁文의 잔치’라는 뜻으로, ‘玳瑁’와 같이 화려한 장식을 한 옥당의 문사들이 참석한 잔치를 가리킨 것이다. 거기에 학도 함께 참석하였던 것을 기억할지, 이미 떠나간 학을 두고, 아련한 마음을 담아냈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학을 놓아 하늘로 보낸 뒤, 곧 失鶴에 대해, 정영위 고사가 담긴 신비로운 공간인 千年柱를 떠올리고, 학을 연꽃에 비유하여 十丈蓮이라 그려냈다. 앞서 송재 詩에서는 학의 붉은 정수리인 丹頂을 紅蓮에 비웠는데, 여기서 하서는 ‘十丈蓮’이라 하여, 학의 몸과 깃털 등의 색과 모양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壁夢中仙’은 蘇軾의 『後赤壁

서, 다음 ‘掠舟驚夢’의 ‘掠舟’는 소식의 『후적벽부』에서 각기 인용한 구절이 찾아진다. 마지막 ‘野田有侶, 盍慎媒弄.’는 육구몽의 『鶴妹歌』을, 그리고 詩 본문 마지막 구절인 ‘得處莫留停.’은 邵雍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考證되었다.

賦』에 “꿈에 한 도사가 신선 옷을 펼럭인다[夢一道士, 羽衣蹁躚]”는 구절에서 따와, 이 또한 신선의 이미지를 더하여 학을 나타냈다.

이 詩는 첫 구절에서 떠나간 학을 안타깝게 부르며 시작하여, 중간에 학과 관련한 고사와 표현들을 다양하게 써서 신선과 같이 비상한 학을 떠올린 후, 마지막에 玉堂을 가리키는 표현을 등장시켜, 옥당에서 문사들이 아끼며 키우던 학이 날아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잘 대변해주었다. 앞서 송재와 퇴계 詩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학의 의미에 송대 천명론에 대한 사상적 지향이 들어가 상서로서의 서학의 의미가 형성된 양상까지는 찾아볼 수 없으나, 唐代 失鶴 詩에서 보았던 그리움의 정서와, 한중 학문화에서 학의 의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생의 仙鶴으로서 의미가 잘 표현된 詩라고 할 수 있다.⁴⁸⁾

마지막으로 살펴볼 詩는 석천의 失鶴 詩이다. 석천은 이들 송재, 퇴계, 하서 등과 함께 호당수계한 인물에는 들지 않으나, 훗날 그의 작품이 제 봉에게 영향을 주어 이어지고 있기에 중요하다. 본고에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⁴⁹⁾

48) 이 외에 하서의 다른 영학시를 살펴보면, 학과 관련한 많은 고사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詩經』 小雅에 나오는 「鶴鳴」 章을 바탕으로 한 것은 물론, 혜강의 아들 혜소를 평한 「群鶴一鶴」이란 표현에서 나온 고사, 화표주의 주인공 정영위 고사나 소동파의 「後赤壁賦」에 쓰인 「縞衣玄裳」이란 표현에서 나온 고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사를 써서 장생의 선학의 이미지를 표출함은 물론, 좀 더 세분화하여 「籠鶴」으로 자기 자신을, 「病鶴」으로 시대 현실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서의 시에서 祥瑞로서의 瑞鶴 의미가 들어간 작품은 발견하지 못했다.

49) 원문만을 싣는다. 羅世纘, 『松齋遺稿』, 卷1, 「次玉堂失鶴韻」, “又石川林億齡. 數聲嘹唳沈寥天, 蒼檜陰中苦竹邊. 風雨幾埋三島月, 氷霜又到五湖蓮. 緇塵已汚新毛短, 丹頂猶染舊骨仙. 江海老人空對立, 不知涼露濕秋筵.” 이 또한 석천의 문집 『石川詩集』에는 실리지 않은 拾遺作이다.

4. 의의와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16세기 중반의 『次玉堂失鶴韻』 이전에, 玉堂과 鶴을 함께 다룬 詩로 여말 牧隱 李穡(1328~1396)이 歲畵인 ‘十長生圖’에 題 詩한 작품이 있다. 그 안에서 학을 그린 그림에 제한 詩만을 따로 들어 『次玉堂失鶴韻』의 元韻과 비교해보겠다.

三山渺渺是何方, 삼산산은 아득해라 그곳이 어디인가,
欲駕胎仙叩玉堂. 태선을 타고 옥당엘 들어가고 싶어라.
却恨平生無道骨, 한스러운 건 평생에 도골이 못 된 내가
謾教塵世慕昂藏. 부질없이 세인들의 사모함을 받아서라네.⁵⁰⁾

위 시에서 태선은 학이고, 옥당은 신선이 사는 집을 가리키므로 학이 신선이 되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풀이된다. 옥당은 또한 홍문관의 이칭으로도 쓰이고, 문인들이 선학에 자신들을 의탁되기도 하였으므로, 홍문관에 들어갈 뛰어난 문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세화인 십장생도에 題詩한 점에서, 학을 타고 옥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쌍학홍배를 한 2품 이상의 높은 벼슬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⁵¹⁾

인재의 실학 시는 이러한 목은의 제시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 목은의 제시에는 옥당과 학과 관련해 누구나 원하는 바람을 그려냈다면, 인재는 자신의 경우를 좀 더 의식하고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50) 李穡, 『牧隱詩藁』, 卷12, 『歲畵十長生日雲水石松竹芝龜鶴鹿○吾家有歲畵十長生. 今茲十月尚如新, 病中所願無過長生, 故歷敘以贊云.』

51)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2011, 283쪽. 이 책의 저자는, 십장생도가 기본적으로 도교의 유토피아를 담고 있지만, 이색은 여기에 유교적인 설화와 이상향을 덧붙였다고 풀이하였다.

러하다.

그리고 16세기 중반의 『次玉堂失鶴韻』은, 이보다 뒤에 호남 시단에서 목릉성세의 문인으로 평가받는 제봉 고경명에게서 이와 비슷한 제목을 달고, 단 ‘失鶴’ 대신 ‘詠鶴’으로만 바뀌어 이어져 나타났다. 제봉은 이전 세대인 석천에게서 받은 영향이 매우 큰 점에서 주목된다.⁵²⁾ 고경명은 28세에 사가독서하였는데, 옥당에서 학이 날아가 버린 사건을 두고, 후대 시인으로서 그때를 떠올리며 次韻詩를 지었다.⁵³⁾

幾向塵籠望遠天, 몇 번이나 속진의 새장 향해 먼 하늘 봤는가,
秋風偷眼海雲邊. 가을바람이 눈을 훔쳐가니 바다 구름 가로세.
靈姿定化江州橘, 신령한 자태는 정히 강주의 귤을 변화하고
逸翮應迫(或隨)太乙蓮. 뛰어난 날개로 응당 천신의 蓮葉舟를 따르리.
霜絹漫看留素影, 흰 비단 아득히 보여 흰 그림자 남기니
碧空何處駕飛仙. 푸른 하늘 어느 곳에서 나는 신선 태울까
蒼茫華表音蹤斷, 창망해라 화표주엔 소리 자취 끊어졌는데
奇事猶傳翰墨筵. 기이한 일 오히려 전해져 시문을 짓는구나.⁵⁴⁾

이 시는 끝에서 정영위 고사를 환기하고, 지금도 그 일이 전해져 시문 짓는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도 학의 비상의 이미지가 강한데, 태을진인의 연잎 배를 타고 따른다는 데서 신선의 이미지를 떠올리나, 학이 신선이

52) 朴銀淑, 『高敬命 文學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9, 45~47쪽.

53) 이 시의 제목 옆에 세주로 ‘鶴則逸去已久’라 붙여, 곧 학이 날아간 지 오래라 하여, 당시에 학이 날아간 사건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하여 지은 것일 수도 있다. 운자는 『次玉堂失鶴韻』과 같은 ‘天’韻이다.

54) 高敬命, 『霽峯集』, 卷1, 『次玉堂詠鶴韻(鶴則逸去已久)』, “幾向塵籠望遠天, 秋風偷眼海雲邊. 靈姿定化江州橘, 逸翮應迫(或隨)太乙蓮. 霜絹漫看留素影, 碧空何處駕飛仙. 蒼茫華表音蹤斷, 奇事猶傳翰墨筵.”

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당수계인들의 失鶴 詩와 비교된다. 호당수계인들은 자신이 학이 되어 신선처럼 비상하는 경지를 보여주었는데, 고경명의 詩에서는 학과 신선이 분리되어 신선을 따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이 떠나간 자리에서 인간들이 예전 고사를 떠올리고 詩 짓는 장면을 담아냄으로써, 애상이나 상실의 정조보다는 기림의 의미가 부각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제봉의 詩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 대로 16세기 옥당의 문사들은, 학문적, 문학적으로 교유한 가운데 失鶴이라는 제재를 次韻하면서, 자신과 학을 동일시하여 신선과 같은 경지에서 자유롭게, 옥당에서 누릴 수 있는 학문적, 정신적 비상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뿐 아니라 당시 옥당에서 학을 키운 풍조에 따라 잘 길들여져 지낸 학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天命圖』에 관심을 표명하며 천명사상을 깊이 연구한 이들에게 송대 천명론에 기반을 둔 상서의 서학 의미까지 더하여 반영해, 詩적인 형상화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정된다.

단지 옥당에서 읊은 失鶴 詩만이 아니라 좀 더 넓혀 17세기에 詠鶴詩를 다수 남긴 차천로(1556~1615)의 詩에서 학의 의미를 비교해 살펴볼 수 있다. 차천로 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차천로의 시에서 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의 선적인 세계의 표상으로서의 일반적 성격은 공유되지만, 그 高飛珍重함이 특히 주목되는데, 이는 현실과 멀찌감치 거리를 둠으로써 세상에서의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일평생 현실의 누를 벗지 못한 그가 지향하는 의식세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차천로에게 학은 인간이 시기할 어떠한 가능성조차 배제한 채, 하늘 높이 올라가려는 존재로서 부각되며 이는 비단 학이 아니더라도 그의 詩에서 높이 나는 새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의식이기도 하기에, 속계를 피하고픈 욕구가 차천로가 높이 나는 진중함에 시정이 이끌리는 까닭⁵⁵⁾이

라고 하였다. 이처럼 17세기 목릉성세를 대표하는 차천로는 개인적으로 불운했던 자신의 처지와, 역사적으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화를 피하여 나는 高飛珍重한 학을 형상화해 속계를 피하고픈 욕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16세기 학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 본론에서 『次玉堂失鶴韻』의 창작 배경으로서 먼저 이 詩가 호당수계를 하며 학문 토론을 한 이들에게서 창수된 詩라는 점에서, 16세기 중반 秋巒 鄭之雲과 함께 河西, 退溪 등에게서 『天命圖』와 『天命圖說』 등 사상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 송대 天命論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祥瑞로운 학의 의미가 이들이 지은 詠鶴詩에서 학의 의미 형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하였다. 또 唐代에 失鶴詩가 성행하여 나타났고 이것이 조선 후기 문인들에 의해 題詩되거나 次韻되며 영향을 끼친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보다 이른 시기인 16세기 중반에 唐代 失鶴詩의 題材와 意想을 공유하며 『次玉堂失鶴韻』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次玉堂失鶴韻』의 정확한 저작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 元韻의 저작 시기부터 추정하여 살피고, 마지막으로 당대 16세기 중반 失鶴詩에 나타난 학의 의미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중반, 목릉성세를 열어갈 세대들이 나타나기 전, 옥당에서 사가독서하며 호당수계를 한 퇴계, 하서, 송재, 석천 등의 문인들이 失鶴을 제재로 창수한 『次玉堂失鶴韻』에 나타난 학의 의미를 고찰하며 그 학문적인 바탕과 실험적인 창작 정신을 함께 읽어냄으로써, 그동안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지지 않았던 16세기 중반 한시의 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55) 임준철, 『조선 중기 한시 의상 연구』, 일지사, 2010, 120~121쪽, 129~132쪽. 여기서 해석의 근거로 살펴본 차천로의 詩는 「晚晴」과 「海鶴」이라는 詩이다.

다만 학문적, 사상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여, 곧 16세기 중반 秋巒 鄭之雲(1509~1561)과 함께 하서, 퇴계 등에게서 『天命圖』와 『天命圖說』 등 사상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 송대 天命論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祥瑞로운 학의 의미가 이들이 지은 학 시에서 학의 형상에 영향을 미친 점을 추정해보려고 시도했으나, 그러한 학문적 영향을 받은 면모가 이들이 옥당에서 지은 失鶴 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 외 다른 시들에서 연관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많은 부분 추정에 그친 점은 본고의 한계이다. 이 점 추후 연구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1. 자료

- 高敬命, 『霽峯集』, 경인문화사, 1996, 1~157쪽.
金克成, 『憂亭集』, 경인문화사, 1996, 345~455쪽.
金麟厚, 『河西全集』, 경인문화사, 1996, 1~472쪽.
羅世績, 『松齋遺稿』, 경인문화사, 1988, 47~139쪽.
李穡, 『牧隱詩藁』, 경인문화사, 1996, 498~517쪽.
成海應, 『研經齋全集』, 경인문화사, 2001, 1~472쪽.
宋麒壽, 『秋坡集』, 경인문화사, 1996, 429~485쪽.
申晷, 『汾厓遺稿』, 경인문화사, 1996, 313~604쪽.
尹根壽, 『月汀集』, 경인문화사, 1996, 273~395쪽.
李滉, 『退溪集』, 경인문화사, 1996, 284~300쪽.
林亨秀, 『錦湖遺稿』, 경인문화사, 1996, 213~260쪽.
崔演, 『艮齋集』, 경인문화사, 1996, 1~212쪽.
洪暹, 『仁齋集』, 경인문화사, 1996, 261~428쪽.

刊寫者 未詳, 『唐詩詠物』(筆寫本, 奎章閣 所藏, 一石文庫), 1~72쪽.

2. 논저

- 고연희, 『한중 영모화초화의 정치적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80쪽.
김민정, 『檀園 金弘道の 花鳥畵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10쪽.
柳正東, 『天命圖說에 關한 研究 ; 陽村, 秋巒, 河西, 退溪의 天命觀의 脈絡 을 中心으로』, 『東洋學』, 제12집,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1982, 235~264쪽.
朴銀淑, 『高敬命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189쪽.
박준규·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1~406쪽.
박철상, 『王羲之 蘭亭修禊의 수용 양상과 詩社에 끼친 영향』, 『한문학보』 제26집, 우리한문학회, 2012, 3~32쪽.

劉權鍾, 『天命圖 비교 연구: 秋巒, 河西, 退溪』, 『韓國思想史學』, 제19집, 한국사상학회, 2002, 119~149쪽.

俞炳禮, 『백거이 시에 나타난 학의 이미지』,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연구회, 1997, 134~152쪽.

이병주 외, 『한문학사』, 새문사, 1998, 1~530쪽.

임준철, 『조선 중기 한시 의상 연구』, 일지사, 2010, 1~502쪽.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2011, 1~331쪽.

정석태 편저,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1, 퇴계학연구원, 2001, 1~685쪽.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1~734쪽.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crane that appear on the Crane poem
Ode[詠鶴詩] in 16th century midway
— Focused on 「次玉堂失鶴韻」

Lee, Yeon-soon

This paper attempted to look at the meaning of the crane in mid 16th century, especially focused on 「次玉堂失鶴韻」 that a number of Dokseodang[讀書堂] writers have created works. Therefore first, I estimated the creative background and author period of this poem. Next, I tried to extract the meaning of crane that appeared on 「次玉堂失鶴韻」. As a result, I revealed that the mid-16th century writers expressed a willingness to fly mentally and academically through identify with crane.

Key Words mid 16th century, the crane, the Crane poem Ode[詠鶴詩], 「次玉堂失鶴韻」, Dokseodang[讀書堂] writers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